

황칠나무



황칠나무는 새순과 줄기, 가지를 말려 차로 마시고, 환, 가루, 진액 등으로도 만들어 먹는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아울러 김치를 담글 때 황칠 가루를 넣으면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미용에 효과적이어서 비누 등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인다.

또한, 황칠나무는 예로부터 목공예품을 만들 때 색을 칠하거나 표면을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황칠은 인공 도료로는 발현하기 힘든 수려한 황금빛 색감을 내고 안식향이라는 천연향을 가지고 있어 선조들이 많이 사용했던 가공재료이다.

황칠나무에는 어떤 효능·효과가 있을까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면역증진	항암	항균	여성 갱년기 증상개선	항노화	항산화	피부미백

구분	제목	연구기관	연도	주요내용
①, ②	황칠나무 잎의 면역활성증진기능 탐색	강원대학교	2002	· 황칠나무 잎 추출물은 인간 유방암 세포주와 간암세포주의 저해, 면역세포(B세포, T세포)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남
③	국내 황칠나무 발효 추출물의 항균력 평가	금오공과대학교	2018	· 황칠나무의 추출물과 발효 추출물의 항균력을 평가한 결과 대장균(<i>Escherichia coli</i> , <i>E. coli</i>), 포도상구균(<i>Staphylococcus aureus</i> , <i>S. aureus</i>), 녹농균(<i>Pseudomonas aeruginosa</i> , <i>P. aeruginosa</i>)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있었고 특히 발효추출물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④	황칠추출분말이 난소적출 흰쥐의 여성 갱년기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	2019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루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황칠추출분말을 폐경의 유도를 위해 난소를 절제한 쥐에 투여한 결과 폐경기 여성에게 높다고 알려진 오스테오칼신, CTX는 감소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활성화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함
⑤, ⑥, ⑦	산지별 황칠추출물의 항산화, 항노화활성 및 지표성분 분석	조선대학교	2021	· 폴리페놀 함량은 고흡산 황칠 잎과 제주산 황칠 줄기 추출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DPPH라디칼 활성 및 줄기 모두 제천산 황칠에서 높게 나타남 · 피부의 항노화 효과를 평가하는 collagenase와 elastase 저해활성은 고흡산 잎과 줄기 추출물에서 유의적인 활성을 보임. ·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tyrosinase저해활성 측정에서 제주산 잎과 고흡산 줄기 추출물에서 높은 저해율을 나타냄